

해풍 맞고 자라...완도 명품 농산물 이유 있었네

郡 연구용역 결과...당도 3.6%·무기질 13.5% 많아
맛·향·기능성 탁월...바닷바람 농업적 이용가치 규명

바닷바람(해풍)을 맞고 자란 농산물이 맛과 향은 물론 무기질 함량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해풍의 농업적 이용가치 규명(究明)'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완도군이 지난해 6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8개월간의 연구 기간을 거쳤다.
용역결과 완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부지화, 비파, 포도 등)이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의 영향으로 타지역에 비해 당도와 무기질인 칼리·칼슘과 생리활성 물질인 나린긴·헤스페리딘 함량이 높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산 포도는 당도가 15.2브릭스로 비교지역(14.8브릭스)보다 3.6%나 높았고, 무기질도 3.63mg으로 비교지역(3.31mg)보다 13.5%나 많았다. 색소인 안토시아닌도 1.52mg으로 비교지역보다 1.09mg이 나 높았다. '한라봉'으로도 불리는 부지화의 당도는 13.1브릭스로 비교지역(12.8

브릭스)보다 5.5%, 무기질은 53.2mg으로 비교지역(46.7mg)보다 13.8%나 많았다.
간기능 강화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나린긴·헤스페리딘 등 기능성 성분도 비교지역보다 5.0μg, 0.8μg씩 높았다. 아열대성 과일인 비파는 당도가 12.7브릭스로 비교지역(12.4브릭스)보다 3.4% 높았으며, 칼륨·칼슘 등 무기질 함량은 55.58mg으로 비교지역의 53.25mg보다 4.1%나 많았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측은 해풍이 자라게 자라는 것을 막으면서 각종 영양분이 열매로 이동하고, 해풍과 해무에 함유된 각종 무기질이 열매와 접촉하면서 각종 성분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박용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풍과 해무에는 무기질이 풍부하다"며 "완도 농산물은 해풍과 해무에 있는 무기물들이 과수에 접촉해 과실 내에 무기물 함량이 축적돼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기능성이 뛰어난 완도 농산물의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완도 농산물의 명품화 이미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해풍의 농업적 이용가치 규명(究明)'을 통해 학술적으로 검증된 완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신우철 완도군수가 최근 금당 섬마을 작은도서관을 찾아 지역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완도 금당 섬마을 작은 도서관 개관

전국 각지 기증 1000권 등 도서 1500권 비치

완도군 금당 섬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섰다.
완도군은 "최근 금당 섬마을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전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정보화마을센터 내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금당 섬마을 작은도서관은 49.5㎡ 규모로 1500여권의 장서와 열람석 20석, 이용자용 PC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지역주민을 위한 책과 정보 제공은 물론 만남이 있는 문화사랑방 공간을 조성한 만큼 주민들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보조금 지원과 공공도서관과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계 추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금당 작은 도서관 관계자는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도서관 개관 홍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기증도서 1000여권도 배치했다"면서 "도서 기증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 부족한 장서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풍이 키운 완도 해변딸기 본격 출하

완도지역 청정 바닷가의 해풍을 맞고 자란 겨울철 '해변딸기'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 딸기는 깃털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성장해 미네랄이 풍부하며 해변 딸기로 불린다. 특히 무농약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돼 겨울철 안전 먹을거리로 큰 인기가.
겨울철 해변딸기는 성숙기간이 50~60일 정도로 많이 소요되고, 온도가 낮은 시기에 성장하는 만큼 야간 호흡량이 적어 축적되는 양분도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효과로 딸기 과실은 커지고 당도도 높아지게 된다.
완도 딸기의 당도는 12.0brix, 당산비(산 함량에 대한 당도 비율)는 24.7%로 높고, 맛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딸기 재배가 겨울철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노동력 고령화로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고설식 수경재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지역 해변딸기 재배 농민들이 본격적인 출하철을 맞아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향긋한 봄내음...진도 봄동 배추 인기

제철 맞아 본격 출하...168농가 7602t 생산

진도지역에서 생산되는 겨울철 명품인 봄동 배추(일명 떡배추)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진도의 겨울철 대표적 농산물인 봄동 배추는 줄기와 잎 부분이 부드러워 맛이 좋아 된장국이나 나물무침, 김절이 등으로 요리하면 구수하고 진한 향을 내 각 광받고 있다.
특히 한겨울 때서온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달콤한 배추인 봄동은 한 해가 시작되는 1월부터 2월이 봄동의 최고 전성기로 지금 진도군은 제철 봄동을 수확하느라 농가들은 분주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
봄동 재배 농가들은 "눈과 서리를 견디고 자란 봄동은 지금 단맛이 가장 좋을 때이다"며 "달짝지근한 맛과 아삭한 식감의 진도 봄동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봄동은 진도군 일대가 주산지인 폭설 등 한파의 영향과 웰빙 식품 인기로 2만 원~2만5,000원(15kg 기준, 가락동 시장 경매가 기준)까지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진도군은 전국 봄동 주산지로 전체 168농가가 229ha에 봄동을 재배해 연간 7602톤을 생산, 20억원 인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도 봄동은 지난 2013년 202ha(6706톤), 2014년 198ha(6573톤)가 생산되는 등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봄동은 남자 어른이 두 손을 펼쳐 엮었을 때의 크기 정도가 최고 상품으로 잎이 뻗었는지 않고 부드러워야 김절이로 사용할 때 씹는 맛이 아삭 아삭하다.



진도지역 농민들이 제철을 맞은 봄동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늦가을 씨를 뿌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겨울 배추인 진도 봄동은 칼륨과 칼슘, 인이 풍부해서 빈혈·동맥 경화 예방에 좋다.
진도군 관계자는 "겨울에 나고 자라 잎이 엷으로 활짝 퍼지는 진도 봄동은

태생부터 남다른다"며 "겨울철 찬바람 뒤흔어 보아 삼아 자라는 진도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씹는 맛이 고소하고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해 인체에 무더지고 느려진 기운을 자극해 준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spark@

박철환 해남군수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박철환 해남군수가 제6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2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박 군수는 취임 이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 매년 20개 이상의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하면서 2015년 한해 동안에만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선수 및 임원이 해남을 찾았다.
특히 따뜻한 기후 등 해남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2014~2015 동계 시즌동안 14종목 323팀, 연인원 8만 6000여명이 해남에서 훈련하는 등 전국 최고의 스포츠 마케팅 메카로 자리잡게 했다.
전국대회 및 동계전지훈련을 통한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5년에만



박철환(오른쪽) 해남군수가 지난 22일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남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육상과 펜싱 직장운동부팀 창단, 운영함으로써 우수 스포츠 선수 지원과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저변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철환 군수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남이 전남 체육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투데이 경매 부동산 경공매 추천물건

- 광주 광산구 수원동 1층상가**
수원지구대 인근 상가 아파트 상권 현 음식점 이용중 면적 48㎡
감정가 2억 6천
최저가 2억 6천
- 광주 서구 농성동 상가주택**
건강 관리협회 사거리에서 유니비시아드힐스테이트 방향 도로접 2층 상가주택
대지 135㎡ 건물 146㎡
감정가 2억 2천
최저가 2억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두암초등학교 인근 도로인접 지하 1층 ~ 지상 4층
대지 145㎡ 건물 475㎡
감정가 3억 5천
최저가 2억 4천
- 광주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무진대료업 상업지대 위치 지하 1층 ~ 지상 5층
대지 491㎡ 건물 1,468㎡
감정가 11억 3천
최저가 7억 9천
- 광주 서구 광천동 근린시설**
광천터미널 뒤편에 위치 대로변집 현 나이트클럽 운영중
대지 2,644㎡ 건물 8,487㎡
감정가 138억 8천
최저가 77억 7천

투데이옥션 이현석
010-9963-6345

한국토지경매학원 개원

업계 최고 경매 전문 컨설턴트와 현직 CEO로 구성된 교수진으로 건전한 경매문화를 선도하고자 한국토지경매학원을 개원합니다. 경매와 부동산 제테크 전반에 관하여 확실한 '늘'을 드게 해드리겠습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곧 '돈'입니다. 경매 완전 초보에서 실전 투자까지 1개월 내에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기회를 잡으십시오.

개강 : 3월 3일(목)

• 시간
오전반 화·목 10:00~12:00
오후반 화·목 19:00~21:00
주말반 토·일 14:00~16:00

• 장소 :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 4층(지하철 문화정당역 5분)
• 과목 : 실전경매(1개월 완성)
• 교수진
한국토지경매연구원장 김광민 (주)투데이 옥션 소장 이은진
한국토지경매(주) 대표 이용국 하프경매(주) 대표 한길
(주)하프옥션 대표 김현미 하프경매연구 원장 유선자

건전한 경매문화를 선도하는
한국토지경매학원
☎ 232-9994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근린시설 토지450평
요양병원추천 ▶감정가 31억 최저가 11억 (감정가의36%)
- 해남군 화원면 토지1500평 바닷가 전망 계획관리지역
건축허위가능 ▶감정가1억2천1백 최저가3천1백만원
- 동구 학동 무등파크~아남아파트사이 도로접
1층근린주택 대지45평 건물29평 ▶거래가9천1백만원
- 광산구 송정리 도산역인근 준주거지역 대지119평
6차선도로변 신호등담 투자적합 ▶최저가4억2천만원
- 북구 중흥동 단독주택 건물51평 토지46평
▶감정가1억2천2백 최저가8천6백(감정가의70%)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쌍촌역인근 지하1층~5층
건물 365평 대지 90평 방37개 ▶감정가 12억3천 최저가 7억
- 화순군 화순읍 건물86평 대지211평 고급전원주택
위치좋은 ▶감정가4억4천 최저가3억1천(감정가의70%)
- 장성군 진원면 전원주택 건물82평 대지100평
도로접 주차편리 광주에서5분거리 ▶거래가9천4백만원
- 서구 양동 건물425평 대지175평 숙박시설 방40개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11억 최저가6억 (감정가의56%)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 4성급 ★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후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층

건축연면적 7,091㎡ (2,149평)
토지면적 3,478㎡ (1,054평)

-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동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연락처 061-242-7782, 010-9868-5151